대학생의 생활자원 절약 의식과 태도에 관한 기초연구*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Concerning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 수 손 경 희
교 수 윤 정 숙
교 수 곽 동 경
교 수 조 길 수
조교수 천 종 숙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
Prof. : Kyung Hee Sohn
Prof. : Chung Sook Yoon
Prof. : Tong Kyung Kwak
Prof. : Gil Soo Cho
Assi. Prof. : Jong Suk Chu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고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level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concerning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ir attitude and perception on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The subjects were 787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n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of housing resource were higher than that of food resource or clothing resource. And the perception was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higher than the attitude in general.

2.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n conservation of living resour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der, age, and grade.

3. The group that had high perception on conservation of living resource actively put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in practice.

4. The group that had showed strong interesting on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got information on it from mass communication system or their parents.

Ⅰ.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생산양식과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소비의 급증과 자원남용이 초래되었고, 특히 국내에서는 급격한 경제적 지위향상, 소득수준의 상승 등으로 내구성 소비재들이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의 유행성을 지닌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고(강이주, 1989), 이로 인해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과도한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이 유발되었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물의 발생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자원고갈 및 자원의 이용과 폐기 등 제품의 사용과 그 처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자원절약.및 환경보존에 대한 많은 계도를 펼치고는 있으나,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윤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인식과 그에 따르는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와 이의 실천 태도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며, 이를 기초로 소비자 의식의 변화를 통해 불합리한 소비행동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은 제품의 처분뿐만 아니라 구매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의식과 태도의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근래에 들어 폐품의 처분 행동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가정에서 처분행동의 주요한 주체가 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그 처분행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의 생활자원 절약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 절약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과 그 태도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의식

환경의식이란 특정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사용 및 처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적이고 일관성있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권봉애 외, 1995).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는 특정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소유, 사용 및 처분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일관성있는 관심을 갖고 자신의 가치, 태도, 의식 및 행동에 반영시키는 사람이며(Henion, 1982), 재화와 용역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서정희, 1986).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소비자의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Tognacci 등(1972)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연령과 부적인 관계이고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과는 정적인 관계라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도시주부의 소비자 재활용 의식을 조사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건전한 소비자 의식을 갖는다고 하였다(남은주, 1982).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에

너지 소비를 절약하려는 의식이 높으며(이기춘, 1974, 최남숙, 1984), 주부들은 대기오염, 폐기물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면서도 이의 관리행동은 낮고, 식품에 대한 관리행동은 높다고 하였다(이정우, 이명숙, 1988). 노채영(1991)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남(1992)은 주부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고, 주부의 생활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교육수준이라고 하였다.

2. 재활용 처분행동에 대한 소비자 행동

제품의 처분행동은 제품의 유지(계속사용, 목적변경사용, 보관), 제품의 영구적 처분(버림, 기부, 판매교환), 제품의 일시적 처분(대여, 임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박명희, 1995). Burke, Conn, Lutz(1978)는 처분행동을 제품이 그 원초적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가계가 그 제품에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처분행동의 대안으로 제품 폐기 판매, 자선기관에 기증,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줌, 새 상품 구입시 헌것을 주고 그 값을 얻음, 당분간 보관하는 것들이 있었으며,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생활양식과 심리적 변수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제품을 보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Harrell, Mcconocha(1992)는 처분행동을 남에게 주거나 기부하는 형태인 이타주의적인 행동과 보관, 폐기와 같은 비이타주의적 행동으로 분류하였고, De Young(1985)은 재활용 처분행동의 중요한 이유는 내적 동기와 개인적 만족이며, 처분행동을 재생이용과 재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재생이용은 쓰레기화하는 과정과 이를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재생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한 방법이나 재이용 처분은 이러한 부가적 에너지의 소모가 없이 재이용됨으로서 시장내에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재활용 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Peter(1974)는 재활용센터 이용의 여부는 소득수준, 가장의 직업, 주부의 교육수준과 관련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Harrel, Mcconocha(1992)는 보관행동과 폐기행동은 연령, 거주년수와 부적관계였으며, 기부행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많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 기능의 수행수준은 성별, 가계소득, 교육정도,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서정희, 1991), 주부의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수준은 연령이 낮고 교육이 높을수록, 가장의 직업이 전문, 관리직에 종사하고 고소득층일수록 높아진다고 하였다(홍기남, 1992).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특성은 자녀수, 소득수준, 사회계층, 주거형태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으며(안길상 등, 1993), 환경오염의 원인과 실태 등 환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주부일수록 환경보전 태도가 높다고 하였다(이승신, 1993).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남, 녀 대학생들의 의·식·주생활 전반에 걸친 재활용과 물자절약에 대한 의식과 그 태도와의 상호 관련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면에서의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수준과 태도수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수준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을 알아본다.
3) 의식수준에 따른 태도의 차이 및 이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을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문항은 각 영역별로 12문항씩 36문항을 기초로 하였으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4문항을 제외한 32문항을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응답자의 성별, 나이, 학년, 외식형태, 주거형태, 점심식사 장소, 용돈조달 방법, 자원재활용에 대한 정보의 원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 척도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 척도는 의생활면 5문항, 식생활면 5문항, 주생활면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영역의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의·식·주생활 각 영역의 문항들은 Cronbach's α가 0.52, 0.43, 0.73으로 나타났다.

3) 자원절약에 대한 태도 척도

자원절약에 대한 태도 척도는 의식 척도와 마찬가지로 의생활면 5문항, 식생활면 5문항, 주생활면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영역의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0.50, 0.56, 0.62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0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하여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1997년 5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800부를 배포하여 798부를 수거하였고, 이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78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통계팩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ANOVA, t-test, x^2-test, SNK test, cluster analysi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대학생 426명과 여자대학생 361명으로 2, 3학년이 65.6%를 차지하였다. 용돈은 과반수가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87)

변 수	구 분	빈 도(N)	백분율(%)
성별	남학생	426	54.1
	여학생	361	45.9
학년	1학년	119	15.1
	2학년	292	37.1
	3학년	224	28.5
	4학년	152	19.3
용돈조달 방법	부모님	397	50.6
	아르바이트	141	18.0
	부모님/아르바이트	238	30.3
	기타	9	1.1
주거형태	단독주택	180	22.9
	아파트	308	39.2
	기타	297	37.8
외식유형	한식	528	68.4
	중식	35	4.5
	일식	27	3.5
	패스트푸드	182	23.6
점심식사 장소	학교 구내식당	642	82.2
	학교외의 식당	128	16.4
	도시락	11	1.4
자원재활용 정보 원천	가정	71	9.2
	학교	63	8.1
	음식점/상점	21	2.7
	매스컴	620	80.0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39.2%로 가장 많았고, 외식형태는 68.4%가 한식이었고, 양식은 패스트푸드에 포함하였다. 점심식사 장소는 대부분이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재활용의 정보는 대부분 매스컴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점수는 〈표 2〉와 같다.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은 주생활자원(4.01), 식생활자원(3.60), 의생활자원(3.56)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태도도 주생활(3.32), 식생활(3.28), 의생활(3.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채영(1991)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홍기남(1992)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 문제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인 환경 보존을 위한 행동은 의식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의식과 태도의 차이는 주생활자원 재활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실질적인 의식과 태도의 점수는 높으나 그 괴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자원 절약에서 의복의 처리문제나 폐기방법에의 관심은 의식보다 태도가 높게 나타나 처리문제에 대한 실천정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의식과 태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의복의 계획구매에 관한 것이었다. 의복의 교환 사용은 의식은 높았으나 그 태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입지 않는 의복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식은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의복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역시 의식은 높았으나 태도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의복의 수선은 의식과 태도의 점수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식생활자원 절약에서, 전체적으로 식생활자원 절

〈표 2〉 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점수

	문 항	의 식		태 도	
		평균	S.D.	평균	S.D.
의생활	의복의 처리문제나 폐기방법에의 관심	2.77	1.03	3.05	1.02
	안 입는 옷의 교환 사용	3.50	0.91	2.51	1.02
	헌옷과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 여부	3.75	1.17	2.99	1.20
	안 입는 옷의 수선 후 사용	3.64	0.84	3.30	1.14
	의복 구매시에 사전 계획 여부	4.12	0.79	3.52	0.92
	평 균	3.56	0.56	3.07	0.61
식생활	음식물 안남기기 여부	4.15	0.78	3.99	0.9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관심	3.05	0.85	2.72	1.04
	계획적인 식품 구매	3.51	1.01	2.81	0.84
	외식업소의 좋은식단제 실시에 대한 호응 정도	3.01	1.14	3.53	0.82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4.25	0.71	3.34	1.08
	평 균	3.60	0.50	3.28	0.57
주생활	쓰레기 처리 및 폐기	4.09	0.65	3.66	0.88
	전기제품의 구매 및 관리	4.22	0.67	2.84	0.95
	전기절약 의식 및 가전제품 사용 방식	4.06	0.71	2.43	1.15
	공공장소에서의 에너지 사용	4.24	0.63	4.24	0.74
	국산품 사용 및 구입관리	3.61	0.84	3.17	0.85
	자신의 물건에 대한 관리	3.84	0.87	3.55	1.00
	평 균	4.01	0.47	3.32	0.55

약에 대한 의식에 비해 실천적인 태도가 뒤따라주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의식과 태도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음식물 안남기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관한 것이었고, 의식과 태도 모두 낮게 나타난 것은 범국민적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일상적 관심정도와 외식업소의 좋은 식단제 실시에 대한 호응정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도하에서 실시되고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효과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의식은 낮으나 태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계획적인 식품 구매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93년도 서울시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 구매 전에 식단 작성을 통한 계획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70.8%가 가지고 있으나, 실제 실천하고 있는 주부는 9.7%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대학생의 의식 및 태도에 대한 결과는 대조적임을 보여주었다.

2. 성별에 따른 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수준

성별에 따른 생활자원 절약 의식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생활자원과 식생활자원의 절약 의식은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주생활자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의생활과 식생활의 자원절약 의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p<.001$)으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들이 자원절약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과 여성의 역할(여성개발원, 1993) 연구에서는 환경 오염 피해의식이 여성이 식수나 수질오염, 쓰레기나 악취, 건강상의 피해를 느끼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노재영(1991)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가사 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상적으로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어 가정에서의 제품 사용, 관리 및 폐기에 대한 교육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표 3〉 성별에 따른 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 수준

변 인	분 류	평 균	표준편차	t 값
의생활자원	남학생	3.45	0.55	-6.20***
	여학생	3.69	0.54	
식생활자원	남학생	3.52	0.49	-4.60***
	여학생	3.68	0.49	
주생활자원	남학생	3.99	0.50	-1.35
	여학생	4.13	0.44	

*** $p<.001$

주생활자원의 절약 의식 및 태도를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점수가 의식과 태도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제품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태도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전기절약 및 관리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실생활에서의 실천이 미약한 것으로 여겨져 가전제품 구입 및 관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3. 의식 군집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의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들(성별, 연령, 학년, 주거형태, 용돈조달, 주요 외식형태, 점심식사 장소 및 형태, 자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원천 등)과 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p<.001$), 외식형태($p<.05$), 점심식사

장소($p<.05$), 재활용 정보원천($p<.01$)에 따라 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 학년, 주거형태 및 용돈 조달 방법 등에 따라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이 높았고, 의식이 낮은 집단은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자원 재활용에 관한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의식군집간의 차이 검증

분류 \ 집단		의식이 낮은 집단		의식이 높은 집단		χ^2-value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성별	남학생	235	29.97	189	24.11	17.88***
	여학생	145	18.49	215	27.42	
외식유형	한식	240	31.21	286	37.19	10.62**
	중식	13	1.69	21	2.73	
	일식	15	1.95	12	1.56	
	패스트푸드	106	13.78	76	9.88	
점심식사 장소	학교 구내식당	299	38.38	342	43.90	7.20**
	학교외의 식당	75	9.63	52	6.68	
	도시락	4	0.51	7	0.90	
재활용 정보원천	가정	25	3.23	45	5.82	13.27***
	학교	34	4.40	29	3.75	
	음식점/상점	16	2.07	4	0.52	
	매스컴	302	39.07	318	41.14	

** $p<.01$ *** $p<.001$

성별의 경우 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이 높은 집단에 여성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의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 한식과 중식의 비율이 높았고, 의식이 낮은 집단은 일식과 패스트푸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식의 경우 식생활 개선에 대한 방안들이 여러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면, 패스트푸드의 경우 많은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자원 재활용에의 관심이 적을 것으로 여겨진다. 점심식사 장소의 경우는 의식이 높은 집단은 학교 구내식당과 도시락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의식이 낮은 집단은 학교외의 식당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이 높은 집단은 의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정교육을 통해 자원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얻는 비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태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원 절약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생활 자원은 성별에 따라, 식생활 자원은 연령과 학년에 따라, 주생활 자원은 연령, 학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의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태도는 연령,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p<.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의생활자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 사용하지 않는 의류의 처분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으로 여겨졌다.

식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태도는 각 학년별 집단간에 유의적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p<.01$). 즉, 학년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태도

변 인		분 류	평 균	표준편차	값
의생활자원	성별	남학생	3.02	0.61	t= -2.71***
		여학생	3.14	0.61	
식생활자원	학년	1학년	3.20[a]	0.60	F= 4.98**
		2학년	3.21[a]	0.56	
		3학년	3.34[ab]	0.57	
		4학년	3.38[b]	0.52	
주생활자원	성별	남학생	3.26	0.54	t= -2.79*
		여학생	3.37	0.55	
	연령	19세 이하	3.23[a]	0.50	F= 6.15***
		20세	3.27[b]	0.57	
		21세	3.31[b]	0.52	
		22세	3.29[b]	0.58	
		23세 이상	3.49[b]	0.55	
	학년	1학년	3.34[a]	0.53	F= 3.01**
		2학년	3.35[a]	0.47	
		3학년	3.48[b]	0.52	
		4학년	3.52[b]	0.59	

* $p < .05$ ** $p < .01$ *** $p < .001$ [a, b] : SNK grouping

이 올라갈수록 식생활 자원 및 환경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 2학년과 3학년, 4학년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환경과 여성의 역할 연구(여성개발원, 1993)의 환경 관리 행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잘 실천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대학교 1, 2학년보다 3, 4학년이 대학생활과 사회 및 가정생활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자원절약 태도도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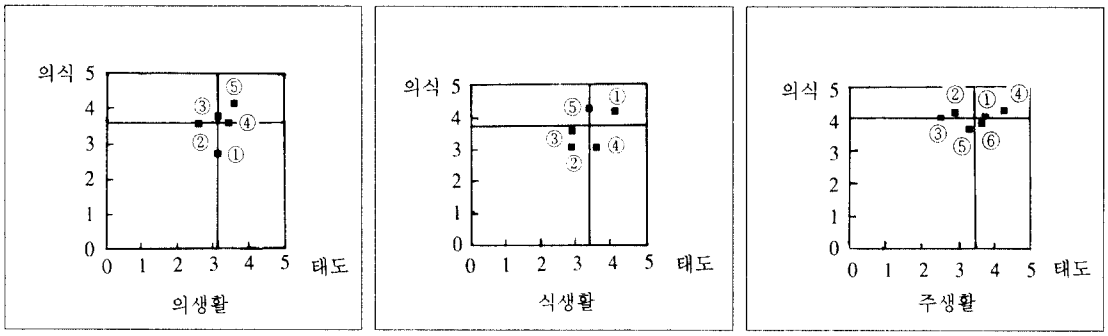
주생활자원 절약에 대한 태도는 연령, 학년, 성별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에 있어서는 19세 이하보다 20세 이상이 자원절약 태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학년별로는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자원절약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식생활자원 절약 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 및 가정생활의 경험의 영향으로 보여졌다.

5. 생활자원 절약 의식과 태도의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IPA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자원 절약면에서 의식과 태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의복의 수선, 의복의 사전계획 구매, 음식물 안남기기,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와 쓰레기 처리 및 폐기, 공공장소에서의 에너지 사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 실천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헌옷과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여부와 전기제품의 구매 및 관리, 전기절약 의식 및 가전제품 사용방식 등의 항목은 의식은 높으나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실천정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의복의 처리문제나 폐기방법에의 관심, 안입는 옷의 교환 사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관심, 외식업소의 좋은 식단제 실시에 대한 호응,



〈그림 1〉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자원 재활용 의식 및 태도의 IPA

국산품 사용 및 구입 등의 항목은 의식과 태도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 이들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졌다.

6. 의식 군집에 따른 자원절약 태도 차이 검증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자원에 대한 자원절약 의식의 정도에 따라 군집분석하여 의식이 높은 집단과 의식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원절약 의식이 낮은 집단의 평균 의식 점수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각각 3.16, 3.27, 3.75로 전체 집단에서 380명이 이에 속하였고, 의식이 높은 집단의 평균 의식 점수는 각각 3.92, 3.90, 4.25로 여기에는 404명이 속하였다.

의식수준에 따른 두 집단의 자원절약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6 참조〉, 자원절약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원에서 모두 자원절약 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 결과는 Morrison과 Gladhart(1976)의 에너지 문제의 실재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더욱 절약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의식이 높은 집단은 자원절약 실천 정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절약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의 생활 전반을 나타내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면에서의 자원 절약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의식과 태도의 전반적인 수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고찰하여 미래 사회의

〈표 6〉 의식 집단에 따른 자원 절약 태도 차이

분 류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t-value
의생활태도	의식이 낮은 집단	2.87	0.53	-9.52***
	의식이 높은 집단	3.26	0.63	
식생활태도	의식이 낮은 집단	3.05	0.49	-11.82***
	의식이 높은 집단	3.49	0.55	
주생활태도	의식이 낮은 집단	3.11	0.51	-11.03***
	의식이 높은 집단	3.51	0.51	

*** $p<.001$

중심이 될 대학생들의 일상 생활영역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향상과 태도의 변화를 위한 실천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녀 대학생들은 주생활에 대한 자원절약 의식과 태도 수준이 식생활, 의생활면에서의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실천 태도보다는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안입는 의복의 처리문제나 폐기방법에 대한 의식은 전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과 태도 수준이 사회적인 지도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전기절약에 대한 홍보나 식생활 개선에 대하여 매스컴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의 계도가 있는 반면, 의생활 자원 절약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자원 절약의 의식과 태도 점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자원 절약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범시민적인 차원의 계도와 홍보가 앞서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자원 절약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연령이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자원절약 실천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식의 경우 남녀 차이만 나타난 반면, 실천 태도는 남녀, 연령,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의식과 태도의 IPA 분석 결과, 문항에 따라 의식과 태도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많은 계도가 있어왔던 문항의 의식과 태도는 다른 문항에 비하여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식은 높으나 태도가 낮은 문항에 대하여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의식 수준에 따른 두 집단간의 태도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식이 높은 집단은 실천 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원 절약에 대한 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는 우선 의식 수준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의식 수준에 따른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는 여성이 많았고, 학교나 상점의 정보보다 가정이나 매스컴의 정보 수집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에 대한 자원 절약 의식의 계도가 필요하며,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가정과 매스컴을 이용한 활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원 절약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의식뿐만 아니라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 절약 방법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서울시내 소재의 하나의 대학교에서 표본추출을 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둘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면에서 각 5~6문항만을 가지고 측정하였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더 세부적인 관련변수를 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일반적 적용을 위하여 좀더 정교하고 질적인 척도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강성진(1993). 가정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 강이주(1989).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권봉애, 강이주(1995). 아동의 환경의식과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도시와 농촌 간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pp. 35-43.

4) 남은주(1982). 도시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하층주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노채영, 신효식, 조혜정(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광주시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pp. 49-62.

6) 박명희, 정주원(1995). 소비자 처분행동 유형과 영

향변수에 관한 연구 -가사용 내구재의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pp. 22-34.

7) 서정희(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서정희(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pp. 93-102.

9) 안길상, 정영숙, 이기주, 이동섭(1993). 생활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4. pp. 20-39.

10) 이기춘(1974).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I: 특히 우리나라 도시주부의 소비의식 및 소비자 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2(2). pp. 19-38.

11) 이승신, 이혜임, 류미현(1993).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능력, 환경문제와 소비자. 한국소비자학회. 4. pp. 11-39.

12) 최남숙(1984). 가정에너지 소비절약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한국여성개발원(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93 연구보고서. pp. 200-205.

14) 홍기남(1991). 생활환경 문제에 관한 소비자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Burke, M., Conn W. & Lutz R.(1978). Using Psychographic Variables to Investigate Product disposal Behavior. Proceedings. Educator Conference. AMA. pp. 321-326.

16) De Young(1993). Changing Behavior and Making it Stick: The Conceptualization and Management of Conservation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5. pp. 485-505.

17) Harrel G. & Mcconocha D.(1992). Personal Factors Related to Consumer Product Disposal Tendenc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8. pp. 397-417.

18) Henion K.(1982). Ecological Marketing: Will the Normative become Descriptive? In Consumerism: Search for the Consumer Interest, Aaker A. and G.S.Day. 4th ed. NY: The Free Press. pp. 280-291.

19) Morrison, B.M. and P.M. Gladhart(1976). Energy and Families: The Crisis and Response. Journal of Home Economics. 68(1). pp. 15-18.

20) Peter W.(1974). Who Cooperates in Volunteer Recycling Efforts? Proceeding of the 36th Combined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 505-508.

21) Tognacci L., Weigel R., Widden M. & Vernon D.(1972). Enviromental and Quality: How Universal is Public Concern ? Environment and Behavior. 4. pp. 73-86.